2019년 로마서 제9강(광주 7부)

바울의 탄식과 감사

말씀 : 로마서 7:1-25
요절 : 로마서 7:24,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확진 환자들이 속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까지 3.4만의 누적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6천여 명이 중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5G 시대, AI의 등장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인류의 미래는 구름 한 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한번에 수천명씩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죄의 세력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이끌려 다니는 인간의 모습,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율법에서 벗어났다(1-6)

1절을 보십시오. 법의 지배는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의 결혼법을 비유로 들어 율법을 남편에 비유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지위가 남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남편에게만 이혼할 권리를 주고 아내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이라 할지라도 여자 마음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누군가 죽어야만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가 있었습니다.(2) 만약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핑계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가 되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3)

율법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남편이 아내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남편이 때로는 끔찍한 아픔을 주기도하는 것처럼, 율법도 때로는 끔찍한 아픔을 줍니다. 죄의식이나 자책, 절망과 두려움을 줍니다. 아내 마음대로 남편과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율법 남편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죄의 댓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4) 그것은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비유에서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심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어 살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율법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구멍 위에다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라고 써 놓으면 절대로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어이 들여다 보게 됩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기회를 타서 피시방으로 달려갑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이상하게 더욱 담배가 땡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더욱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자극해서 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어매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b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말씀공부 하라고 하니까 말씀공부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할례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경륜이 쌓이고 신앙도 더욱 성숙해 져야 하는데 신앙의 년수만 쌓여서 ‘묵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 또 신입생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벌써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왔구나’ ‘아 또 소감 쓰는 주간이구나’ ‘벌써 우리요회가 청소할 차례구나’ 이처럼 율법 조문에 매인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지겹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삶입니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반면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맞서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아무리 클지라도 강한 바람을 타고 가면 별 어려움 없이 배

가 움직입니다. 수백 톤의 범선들도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널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한해 한해 마지 못해 신앙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기대감이 넘칩니다. '아 오늘 양식말씀은 뭘까?' '이번 주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양들을 보내어 주실까?''하나님께서 2020년 올해는 우리 7부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까'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얽매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율법에 대한 변증(7-1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라고 해야 합니까?(7)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죄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기초해 본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한 바른생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바울 마음 깊이 감추어졌던 탐심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계명이 없었다면 그는 탐심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성취동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그것이 탐심의 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무서운 세력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CT나 MRI처럼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은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사람 안에 죄를 더욱 살려내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기회를 타서'라는 말씀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계명의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발심을 갖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명을 어긴 후에는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여자를 원망하며 모든 탓을 돌리는 악에 악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는 생명을 주고자 했던 율법을 사망을 가져오는 도구로 바꾸어버리고자 도전해 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9)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10)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삐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삐딱함'이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크지 않았지만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죄에는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부도덕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경우, 거기에는 항상 피상적인 동기인 탐욕이나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더 깊은곳에 있는 궁긍적인 죄의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주권을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규정한 모든 법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침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원하는대로 살면서 최고가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막습니다. 본질상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권이 침해 받는 것을 미워하는 세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욕망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하는 욕망을 이용하고 속삭였습니다.(창3:5) 이것이 첫번재 죄의 본질이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11,12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죄가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음의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르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은혜도 모르게 됩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없이' 살면 안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는 '나'를 정반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로인해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면서도 육신에 속한 나는 죄 아래로 팔려갑니다.(14) 그래서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지 않으면 15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이 말씀을 실감나게 체험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희생적으로 살고 싶어 할수록,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있음을 발견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노력할수록 정욕의 세력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와 같이 모습은 율법대로 살려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17)

3. 탄식과 감사(18-25)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18)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 무능력하고 비참한 자기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19)

우리가 만일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면서도 탐욕과 정욕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큰소리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20)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상반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다중 자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되고 싶고, 다른 때는 저것이 되고 싶어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 각색의 자아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에 대해서 내면의 원초적인 욕망으로 채워진'리비도'와 사회와 가족들의 규범들로 채워진 양심인 '초자아'를 대조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무엇이 진짜 나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나는 누군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 가장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강력한 죄와 반역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욕망들은 진짜 '바울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지만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책은 제거 되었으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이전 처럼 그 죄의 세력이 나의 인격과 인생을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내 속의 죄가 '참된 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지만,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졌을 때 조차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나'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의식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불신자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조차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자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놀라운 위로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더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아무도 없다고 충고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 너머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과 태도에 맞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조차 내 속에 남아 있는 자기 중심적인 반역의 뿌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죄의 유혹을 받아 죄와 싸우고 패배하는 것조차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자신을 끔찍한 사람이나 매우 악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것들이 성장통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바참함에 대해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만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소망과 해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자꾸 죄의 법 속으로 사로잡아가는 몸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몸의 지체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하고 싶어 하는 일과 미워하는 일이 분명해 집니다. 어떤 것이 하고 싶어질까요?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집니다.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 힘 있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몸의 지체들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소감을 나눌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공부와 소감을 절대적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일용할양식도 꾸준히 먹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을 신실히 하여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일하게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컴퓨터를 켜면 유투브에 붙잡히게 되고 웹툰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화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서 늘 들락거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드라마입니다. 본방 사수하다가 또 한주를 어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하루를 보내버립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주일날은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소원을 진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지체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오래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며 회의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탄식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

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게 지고 마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몸의 지체들이 따라주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늘 직면해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하면, 아니 20년쯤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의 지체들이 하지 못할 때, "나는 왜 이러는 걸까?"하며 자학할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육신이 약하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육신으로도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적으로 갈등도 없고 절망도 없고, 더불어서 나의 연약함도 모르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몸은 약하고 욕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당신의 재림 이후로 미뤄두신 것은 우리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성화와 영화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 때 약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의 성화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때 이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죄에 팔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 다 그렇지'하며 갈등하지 않고 되는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죄와 모순을 극복하고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심오한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이런 진실하고 진지한 내적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그토록 오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형식적인 목자로 전락하지 않은 것도 끊임없이 내적인 성찰과 영적인 투쟁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약함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도 나의 약함을 감당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오호라" 탄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리로다"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탄식이 깊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더 감격적입니다. "오호라"가 처절할수록 "감사하리로다"가 더 감격적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강할수록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강렬해집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망할 때,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거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성숙의 척도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나'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나를 볼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고, 죄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지고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 그렇지 못하는 그를 분리해서 보기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영적 의사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죄 아래 팔린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없는 갈등과 전쟁을 치러가야 합니다. 이 갈등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진지하게 죄 아래 팔린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낙심과 절망의 넘어 '다른 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정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날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력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만성화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 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며 대처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를 시키고, 출입을 차단하고, 여행을 자제시키고, 모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약을 개발하고 검진키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유입요인들을 차단시키고, 경로를 파악해서 이를 줄여나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또 소감을 쓰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